

아동학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치유: 가족 Game 속 “Life-storytelling”을 활용한 가족치료적 접근법

김영희*

국문초록

한국의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에 의해 자행되며 재학대가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된 아동학대의 실상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원인요인, 미치는 영향, 가족환경 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치유와 예방책을 찾아보았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은 삶의 스트레스가 높고, 부모 역시 폭력 속에서 양육되어 바른 부모상을 갖지 못했고, 자녀를 돌볼 시간과 관심과 경제적 여유가 없다. 생존과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감정표현 및 가족대화를 포함한 상호작용이 원활치 못하면서 가족원 서로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죄책감과 좌절감이 투사되며, 가족갈등이 심화되면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노의 폭발이 일어나며 아동학대가 자행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 가족을 병리학적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인만 문제 삼지 않으면서, 가족의 상호작용을 유기체의 혈액순환처럼 여기며 가족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가족치료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가족구성원 간에 대화를 통한 이해를 촉진하고, 가족원이 분화를 이루어, 용납과 사랑받는 마음을 느껴 소속감을 증진하고 가족의 필요충족에 협조 및 헌신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족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족원들이 계임을 통해 부담없이 자발적으로 각자의 처한 입장을 말할 수 있는 life-storytelling 방식을 도입하였다.

중심단어: 아동학대, 대물림, 가족치료, 분화, 가족게임, life-storytelling.

• 논문 투고일: 2016년 4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6년 5월 5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5월 14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I. 여는 글

2016년 벽두부터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로 몸살을 앓았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손으로 아이를 쳐서 아이는 엎드려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다른 교사는 아이의 뺨을 때려 아이가 날아가 나동그라지는 cctv 장면이 텔레비전뉴스에서 방영되었다.¹⁾ 유치원 음악발표회 준비과정에서 원생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유치원 교사 3명의 구속사건²⁾, 빵부스러기를 흘렸다고 5살 딸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건³⁾, 초등학교 아들 때려 숨지게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냉동보관하다 일부를 유기한 아버지 사건,⁴⁾ 생후 40일 아들이 계속 울자 듣기싫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출혈상태에 빠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 실형선고⁵⁾사건, 두 살배기 의붓아들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장기간 때려 학대한 40대 계모사건,⁶⁾ 9개월 친딸이 울고 보챤다는 이유로 핫김에 플라스틱 장난감 공을 던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20대 세쌍둥이 엄마의 구속 사건⁷⁾, 가출한 여중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후 11개월 방치하여 미이라로 발견된 사건⁸⁾ 등이 2016년 1월과 2월에 계속하여 보도되었다.

1) 2016.2.12. <http://tvcast.naver.com/v/272555>

2) 2016.1.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515332317code=940202

3) 2016.1.18.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47137>.

4) 2016.1.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42.html

5) 2016.1.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8922&ref=A>

6) 2016.1.2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79756&plink=ORI&cooper=naver

7) 2016.1.2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79756&plink=ORI&cooper=naver

8) 2016.2.3 http://news.hani.co.kr/art/society_general/729149.html.

경기도내 학대로 판정받은 아동의 수는 2013년 1,516명, 2014년 2,501명(65% 증가), 2015년 2,915명(16.5%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아동을 학대한 사람 중 부모가 2,417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82.9%를 차지하여 '폭력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⁹⁾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반복되어 재학대¹⁰⁾가 일어난다. 아동을 때려 처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가해자가 다시 아이를 때리고,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 학대와 훈육을 제대로 분별 못해 폭력이 반복되기도 하고, 삶의 문제나 경제적 압박감 속에서, 가족이나 시댁으로부터의 스트레스에 대한 분풀이로 학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실상과 원인 요인, 학대의 영향 및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 내의 형편을 알아보고, 학대의 반복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유, 특히 가족 내 상호작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가족치료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은 가족원 모두의 불행감과 삶의 압박이 크고 자신의 형편을 아무도 모른다는 좌절감이 크다. 그런데 부모의 삶의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누고, 자녀의 마음도 서로 드러내어 알 수 있게 하는 life-storytelling 방식을 도입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서로 공흥히 여기며 사랑스러워져서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기 좋다. 따라서 상담원이 가족 학대상황에 개입할 때, 경직된 가족분위기도 깨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족게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즐거운 추억이 쌓이도록 하고, 자녀는 부모

9) 보육교사와 베이비시터 등 대리양육자의 학대비율은 9.8%(285명), 친인척 아동학대 비율은 4.4%(127명). “경기도 아동학대 지난 해 4212건, 전년보다 12.3% 증가”, 「여성종합뉴스」, 2016. 3.11.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77034>.

10)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해 10,027건의 학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중 10.2%인 1,027건이 재학대였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7011011>.

를 이해하고 돕고,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인정해줌으로써 가족간의 소속감, 협동심을 발휘하며, 가족기능의 향상, 가족원의 역할 담당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을 심어주어 궁극적으로 가족의 분노폭발로 인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II. 펴는 글

1. 아동학대¹⁾에 대한 이해

2015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9월 28일 시행된 한국 개정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해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와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다.¹²⁾ 즉,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유기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11) 울산 입양아 전 양 피살 사건 2014년 10월 26일. 울산 중구에 사는 김모(46, 여)씨는 입양한 아이(사망당시 25개월, 여)를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머리, 엉덩이, 다리를 수십 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쓰러지면서 문과 바닥에 머리를 여러 번 충돌했다. 그런데도, 방치하였으며, 정말 상태가 위독해지자 119로 연락했다. 김모씨는 처음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전양을 입양했던 듯하다. 입양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 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김 씨의 남편 전 씨(50)는 별거 중이었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게 방치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김모씨가 양말을 학대하는 과정을 자신의 친자녀에게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죄가 추가되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_genera/722971.html

12)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1&CCINO=2&pc/sNO=1>

2. 아동학대의 유형¹³⁾

1) 신체적 학대(폭력): 손이나 도구 칼 채찍 같은 흉기나 무기 같은 것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화상을 입히고, 던지거나 밀치고 넘어뜨려서 골절시키며, 아동이 상해를 입도록 유도하는 행동.

(1) 심한구타(폭력): 발로 차고, 물어뜯고, 내동댕이(던짐), 심하게 뺨을 때려 날라가게 만들, 들었다가 추락케 함, 주먹이나 물건(홍두깨, 각목, 야구방망이, 골프채, 쇠파대 등)으로 때리고 위협, 담뱃불로 지지기, 뜨거운 물이나 물건, 다리미 등으로 화상입히기, (6세 이하 아동을) 붙잡고 세계 흔들기, 매질 등.

(2) 경한구타(폭력): 물건을 던짐으로 위협, 협박하기, 떠밀기, 움켜잡기, 뺨때림

2) 심리, 정서적 학대(폭력): 말로 혹은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 옷장 벽장 혹은 지하실, 세탁실, 어두운 곳, 추운 곳 등에, 묶어두거나 가둬두는 감금, 집단으로부터의 격리, 긍정적인 행동 벌주기, 돌보는 사람에게 달리붙는 행동 저지하기, 자아 존중감 깎아내기, 대인관계에 필요한 재능(남에 대한 배려나 관심) 벌주기, 옷을 벗겨 집밖으로 내쫓기. 이것은 상해의 증거도 없고 직접 공격이 없어 학대의 정도가 적다고 볼지도 모르지만, 잘못한다는 인식없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행해지면서 아동의 존재가치에 대해서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무심결에 행해지면서 가정과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파괴력이 크고 영향력이 오래가는 언어적 학대는 심리,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지만, 실제 학대 사건에서는 관심 영역이 되지 않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13) 기존의 학대 유형에 매체에 보도된 사건에 드러난 유형을 연구자가 첨가하였다.

(1) 언어적 학대(폭력): 아이들의 발달이나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말로하는 얽잡아보고 비교하여 깎아내리는 말, 모욕적 언사, 흥내내어 놀리기, 별명붙이기 등, 위축되게 만드는 말.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여 저주에 가깝게 퍼붓는 말 등이 포함된다.

3) 방치, 신체적 거부(유기): 어린아이에게 음식, 옷, 숙식 제공않고, 돌보지 않고 버려둠, 아이의 출생시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자라면서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거나 소홀히하고, 난방의 부족, 화재위험, 춥고 더럽고, 부적절한 침실 환경, 곤충, 쥐 다람쥐와 같은 동물의 침입, 신체 관리를 적절히 해주지 않는 것, 불결하거나 위생상태가 열악한 상황에 아동을 방치하는 것, 질병에 걸린 아이를 돌보거나 치료해 주지 않고 버려두는 것,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서도 무관심한 것, 치과치료 방치, 영양과 의복과 위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영양 공급을 안해서 성장발육을 막는 것, 자녀를 집에 혼자 방치해 두어 위험에 무력하게 노출되게 하는 것, 학령기가 되어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무단 결석에 대한 허용 및 방치, 학교를 못가게 하는 것,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것, 비행 알콜/약물 남용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묵인하는 것, 정서적 문제 있는데도 치료 거부하는 것 등.

4) 성적 학대(폭력): 아이와 어른 혹은 힘(권위)을 가진 사람과 성적인 접촉 성적 희롱, 추행, 강제 성관계, 근친상간, 매춘이나 포르노 필름 제작하기 위해 착취를 하는 것. 나이 많은 형제, 사촌, 아저씨, 아줌마 같은 친척, 계부, 계모, 할아버지, 부모, 이웃사람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이웃사람, 계부, 형제(사촌)등의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많다. 아동학대와 아동에게 범하는 범죄와의 다른 점은 학대자가 부모, 보호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이 정상적인 성인이 되기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성인들이라는 점이다.

3. 아동학대로 인한 증상

1) 신체 장애, 뇌손상, 뼈와 관절의 골절 및 형태상의 변형, 온몸에 멍

학대받은 아동은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굶겨서 신장이나 체중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 적고, 빈혈이나 영양불량 심할 경우엔 영양실조¹⁴⁾ 등의 문제가 있다. 심한 경우엔, 갈비뼈, 허벅지뼈 등의 골절, 얼굴과 온몸에 멍들, 맞은 곳이 낫기 전에 또 맞아 근육의 소멸¹⁵⁾, 뜨거운 물이나 다리미로 화상을 입거나, 내부 장기 파열, 턱과 머리 찢어짐, 팔 다리 관절 변형, 뇌출혈이나 뇌진탕으로 인한 뇌손상 등을 입었고, 심각한 장애를 입고 살아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2) 심리, 정서적인 부적응: 위축, 자존감 손상, 맹종적 삶의 태도, 부정적 의타적 삶의 방식

“감정변화가 심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극한 스트레스 사건인 외상사건(traumatic events)은 심각한 정신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낮은 집중력 등 인지적 손상과 더불어 학업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14) 2015년 인천 연수구 빌라에 2013년부터 3년간 감금 당한 5학년 소녀의 몸무게는 16kg(4세 아동의 몸무게), 키 120cm였다. 아버지는 동거녀와 동거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에 빠져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밥도 주지않고 방치했다.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으면 아무데나 손댄다고 때렸다. 세탁실에 감금당해 너무도 배가 고프는 소녀가 빌라유리창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도망나왔다.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다. 게임중독아빠 학대피해 11살 소녀 필사의 탈출. 연합뉴스 2015.12.20. http://yonhapnews.co.kr/bulletin/2015/12/20/0200000000AKR201512200271510_65.HTML?from=search

15) 2013년 10월 23일 울산계모의 이서현양(8세) 학대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서현은 갈비대 24개중 16개가 골절되었고, 온몸에 멍들었고, 엉덩이 근육은 맞은 곳이 낫기 전에 또 맞아 근육이 소멸된 상태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울산_울주군_여아_학대_사망사건

게 된다.”¹⁶⁾외상사건에 아동학대가 포함된다.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의 경험으로 인해 슬픔, 불행, 절망감 속에서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기가 죽거나 불안하며, 거절감이나 버림받은 느낌이 가득하여 멍하고 있을 때가 많아 생기가 없고 매사에 수동적이다. 호기심이나 탐구심도 없고, 인내가 필요한 성가신 행동에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 부모와의 관계가 냉랭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감정표현을 잘 못하고, 현실인식이 둔하거나 반응이 늦고,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의 문제와 같은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면에서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당하기 쉽다.”¹⁷⁾ 또한, 만성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다 보니 어떤 정신적 충격이나 사고, 재해, 신체적 학대상황에 대해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가해자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하게 있음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한 방편인 듯한데, 오히려 별일이 아닌 상황에서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불안이 엄습하기도 하여 현실에 대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3) 행동조절 장애나 반사회적 행동, 그 반대로 학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학대받은 아동은 좀더 공격적이고 충동성향과 반항적이고 파괴적 성향을 가져 상황에 따른 과잉반응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일탈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반복적인 학대로 인해 처벌과 학대 및 위협을 받으므로 늘 불안하고, 잘못이 없음에도 학대를 받기에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이 많고, 처벌과 학대를 당연한

16) 오윤선, “PPTSD 청소년의 기독교 집단교육상담 효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 1호(2014): 138.

17) Samuel T. Gladding, *Family Therapy*, 김영희 외 공역, 『가족치료』 (서울: CLC, 2015), 676.

일상으로 생각하여,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자존감이 낮다.¹⁸⁾ 스스로 무력감과 무가치함을 느끼고 절망 속에서 자학적이거나 자살시도를 하기도 한다. 청소년 시기에는 학대 피해자가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 가정에서 “인격의 순수성, 즉 참된 친밀감과 믿을만한 진정성이 없는 것을 경험”¹⁹⁾했기에, 학교폭력, 집단괴롭힘이나 가해행위를 통해, 자신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아온 것을 드러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내향적인 아이는 위축되어 감정표현이 어렵고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친구없이 외톨이가 되어 지내며 놀림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4) 부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세계관 및 신관 가짐

학대를 받은 아동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멀리 계신 분, 자신의 형편을 알지 못하거나 관심없는 분, 자신을 위기 상황에서 구하지 않는 분, 자신을 거절하는 분,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무서운 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한다. 또한 학대하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일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하나님은 냉정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왜곡되어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어렸을 때 형성된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왜곡된 관점은 평생동안 지속되기 쉽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학대의 위기에서 아동이 내면에 가진 하나님 상을 표현하고 말씀과 직면하여 수정해야 건강한 성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18) E. J. Mash & D. A. Wolfe, *Abnormal Child Psychology*, 조현춘 외 공역, 『아동이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626.

19) M. A. Yarhouse & J. N. Sells, *Family Therapies*, 전요섭 외 역, 『기독교 가족치료』 (서울: CLC, 2010), 261.

5) 애정결핍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유지 힘들

학대받은 아동은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성인이 되어서 부와 명예,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 안에 있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내면의 아픔을 상쇄하기 위해, 가족의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성취한 부와 권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일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한편, 성공지상주의와 같은 그릇된 가치관을 갖거나 극도의 애정결핍 증상을 보이거나, 끝없이 자학하여 쉽 없이 일에 몰두하는 경우, 연애나 결혼 혹은 친밀한 관계 자체를 거부하려는 경우도 있다.

6) 심리, 정서, 정신적 질환 보유, 학대의 대물림

아동학대가 정말 위험한 것은 학대받고 자라난 아이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쉽고, 세상과 인간을 보는 관점이 왜곡되기 쉽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강박증과 같은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했기에,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이 정서가 병들거나, 감정은 메마르고 성마른 사람이 되기 쉽다. 부모조차 믿고 의지할 수 없었기에 모든 사람이나 매사에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불안장애가 있다. 또한 세상이나 인생에 대해 부정적 왜곡된 관점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힘들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가정이 다른 가정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고 똑같은 폭력으로 늙은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노인 학대를 자행하기도 하며 자녀들에게 학대를 대물림하기도 한다. 또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여 분노조절 장애가 일어나 원치않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서 분노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특정 대상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분노를 폭발하여 “묻지마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구의동 고3 아들, 모친 흉기 살

해사건”과 같은 존속 살해²⁰⁾까지 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존속 살해 사건은 자식이 오랜 기간 동안 학대 받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거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 우발적으로 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자수하거나 바로 자백하는 비율도 높고 따라서 정상참작을 받기도 한다.

아동학대는 학대피해자가 폭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참기만 한다든지, 학대자가 자립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등의 이유로, 당장 보호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특히 보호자의 수입으로 간신히 살아갈 때는 식비, 학비, 기초 생활비조차 해결하기가 어렵다. 또한, 폭력을 피해 달아나도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보호자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총 95,622건이었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55,484건이었다. 10년간 하루 평균 26.2건의 학대의심 사례가 발생했고, 15.2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받아 심각한 상태이지만, 가해자

20) 구의동 고3 아들, 모친 흉기살인 사건. 2011.3.14 <http://namu.wiki/w/구의동고3> 존속살인 사건. 남편의 가출후 아들의 학업성적에 집착하며 학대한 어머니를 고3아들이 흉기로 살인하고, 시체를 방치하고 뱀새를 막기위해 테이프로 방을 발라버렸다. 어머니는 아들만 편애하던 편부 가정에서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 결혼초 남편에게 자살협박을 하는 등, 불화를 겪으며 손을 찬물에 담그지 않겠다며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아들의 학업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초등 3학년때 16시간 공부를 시키고, 중3때 토익 900점을 맞게 하였고 전국 석차는 4000-5000등을 유지하게 했고, 성적이 떨어지면 저녁식사를 주지않거나, 야구방망이, 흉두께로 체벌했다. 사건 전에도 10시간 동안 엎드려 뺨쳐시키며, 잠못자게 만들고,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였다. 학대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여겨 국민참여 재판에서 3년 형집행을 언도받았다.

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여 아동학대 피의자로 조사받은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면죄부를 받아, 실제 피해 아동은 아무런 대책없이 가정으로 돌아가 가해 부모와 함께 살게된 셈이다.²¹⁾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들도 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학대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이 사건이 드러나거나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할 때에 자신과 부모를 동일시하여 오히려 부모를 변호하거나 부모를 처벌하려는 사람에게 저항감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stockholm 증후군²²⁾이라고 부른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트라우마 속에서 느끼는 심각한 불안정애착의 형태로서 꼭 인질이 아니라도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못살게 굴고, 때리고, 위협하고, 학대하고, 가해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강한 감정적 일체감(ties)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폭력을 행하고 나면,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등, 정반대의

21) 해당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572건을 표본 추출해 가해자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니 법원 재판에 넘긴 건은 32.2%에 불과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12.7%였고, 나머지는 기소유예(30.3%), 혐의 없음(13.4%)으로 처리됐다. 아동학대 10년간 하루 평균 15건...가해자 '숨방망이 처벌', 「연합뉴스」, 2016. 1.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8/0200000000AKR2016011809_6200004.HTML

22) 스톡홀름 증후군은 1973년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이 인질범에게 공감과 동정심 등의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심지어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동일시하기까지 한 심리적 현상을 일컫는다. 가해자로 인한 위협에 대해 갖는 비합리적인 감정인데 가해자가 학대하지 않았거나 친절하게 대했다고 여긴다. 대략 인질희생자의 8%정도가 이런 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트라우마 속에서 느끼는 심각한 불안정애착의 형태로서 꼭 인질이 되지않아도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못살게 굴고, 때리고, 위협하고, 학대하고, 가해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강한 감정적 일체감(ties)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희생양이 트라우마 속에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느끼는 일체감인데,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희생양이 가해자와 같은 가치를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위협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Stockholm Syndrome, https://en.wikipedia.org/wiki/stockholm_syndrome.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해자는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폭력의 패턴인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에 혼란을 느끼며, 가해자인 부모가 ‘잘해줄 때도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 ‘화낼 때는 무서워도 평소에는 다정한 분인데 내가 좀더 잘하면 되지’ 라는 심리에 빠져들면서 학대가 지속될 수 있게 허용한다. 가해자가 자녀를 학대하듯 상냥하게 대하거나 선물을 사준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폭력의 패턴²³⁾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가 오랜 시간 이루어져 왔을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주체적으로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성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성인이 된 뒤 충분히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혹은 도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무기력감에 반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²⁴⁾

4. 아동학대의 상황적 요인과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접근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 교사, 어린이집 교사, 보모, 아이 돌보미,

23) *battering*의 패턴(폭력의 사이클): 삶의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폭력을 무차별로 행사하고, 위기 상황이 지나면 자신을 탓하거나 선물, 맛있는 음식, 보석 등 값비싼 물건으로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얼마간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하지만, 곧 삶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쌓여가면,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시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폭발한다. 1단계: 긴장의 고조, 2단계: 격렬한 폭력적 에피소드, 3단계: 보상 및 후회단계에서 다시 긴장의 고조로 돌아가 폭력은 반복된다. Grant L. Martin,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김연 역, 『가정폭력과 학대』(서울: 두란노, 1995), 48-51.

24) 김보은-김진관 사건. 1992.1.17 계부 김영오로부터 9세부터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강간당하였으나 폭로시 식각과 쥐약으로 몰살시키겠다고 협박받은 김보은은 대학 진학후 주중에는 기숙사에 지내며 피할수 있었으나 주말에는 다시 집에 와야했다. 이런 사실을 남친에게 고백하였고, 남친은 계부에게 경고하였으나 계부는 모 지방검찰청 총무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 잡아넣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거꾸로 협박하였다. 남친은 슬취해 김보은과 잠든 계부를 강도를 가장해 살해하였다. 이로 근 친성폭력의 실상이 드러나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김보은_김진관_사건.

친척, 조부모 등 아동의 양육이나 복지에 책임을 진 부모나 후견인과 그 밖에 아동이 건강한 성인이 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건인데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것은 10,027건으로 의심신고의 66.7%가 학대로 판정되었다. 또한, 전체 아동학대 10,027건 중에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8,207건(81.8%), 대리양육자 990건(9.9%)”로 나타났다.²⁵⁾ 아동학대 현상을 볼 때, 심리적 사회적 제약을 개인적 문제의 원인이 아닌, 문제의 상황(context)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가족환경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사례는 7,908건으로 전체의 78.9%에 해당하였고 비동거는 2100건으로 20.9%”였다. 즉,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인 부모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 아닌 가족 형태가 4,919건(49.1%), 친부모가족 4,458건(44.5%), 파악 안됨 336건(3.4%)과 대리양육형태 271건(2.7%)”이었다. 친부모 가족 중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이 18.8%, 모자가정 14.1%, 미혼부모가정이 2.1%로서 전체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35.0%”에 해당한다. 이것을 통해 볼때 친부모가 아닌 가족일 때가 친부모 가족에 비해 아동학대의 비율이 좀더 높고, 친부모 가족일 때는 돌보는 일의 양과 시간과 경제적 이유로 한부모가정의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 5,572건(55.6%), 여성 4,446건(44.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3배 많았고, 행위자 중 40대가 4,337건(43.3%), 30대가 3,091건(30.8%)이었고, 피해아동의 나이는 13-15세가 23%, 10-12세가 21%,

2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보고서, 27.
http://fsvr.korea1391.org/data/2014_childabuse201

7-9세가 18.6%”였던 것으로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²⁶⁾하다.

1) 가정환경적 요인

(1) 친부모 가정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학대나 방임이 일어나기 쉽다

부모의 저학력이나 장애 혹은 관심부족으로 인해 자녀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자녀가 돌출행동이나 발달상의 독특한 특성을 보일 때, 별거, 외도와 같은 부부관계의 갈등이나 친인척 간의 불화 등의 인간관계에 갈등과 삶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한정된 수입에 자녀나 가족 수가 많은 경우, 편부, 편모, 미혼부모의 가정으로 생계를 위한 직장일과 자녀 양육을 위한 돌봄의 절대시간이 부족한 경우, 부모가 있지만 해외파견이나 군입부, 주말부부, 기러기 가족 등으로 같이하는 시간이 적은 가족, 다문화 가족으로 양육을 맡은 한 부모가 그 문화의 언어나 전통, 가치관, 삶에 충분히 동화되지 못하고 자녀의 적응을 잘 돕지 못하는 경우, 직업구성이 노동인 경우, 가족원 간의 관계성이 결핍되어 상호작용이 적고 혼돈스러운 가정인 경우²⁷⁾,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불안, 장기질환이나 정신질환, 신체 혹은 정신의 장애나 질환, 약물치료의 부작용과 독극물에 노출 등으로 인한 자녀 양육 능력이 부족한 경우, 물질의 오남용이나 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

(2) 친부모가 아닌 가정: 재혼으로 인한 혼합가정이나, 입양이나 위탁 가정, 조부모나 이모, 고모, 삼촌 등과 같이 친척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출이나 독립 등의 이유나 종교나 훈련 등, 특수한 목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룹홈 등에서 대리부모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는 소속감

26)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보고서, 27. http://fsvr.korea1391.org/data/2014_childabuse20129.

27) Gladding, 『가족치료』, 676.

이나 가족 간의 친밀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 학대가 행해질 수 있다.

2)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

스트레스와 좌절이 학대행동을 유발시키기 쉬운데,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빈곤선 및 그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부모가 좌절감, 실패감, 무력감을 경험하며 이런 감정이 자녀에게 투사되거나,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껴, 학대를 더 많이 한다. 영세지역 취업모나 한부모 가족의 부모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일하는 가운데 자녀의 신체 정서적 방임이나 학대가 초래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4 전국아동 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3,250건(32.4%), 단순노무직 1,650건(16.5%),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인 경우는 전체의 약 21.6% 정도를 차지했다. 또한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이 2,333건으로 23.3%를 차지했다.²⁸⁾

또한,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혼돈감, 좌절 및 무력감으로 인한 부적응이 가족 내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자녀 양육의 태도, 가치, 역할, 방법에 영향을 준다. 특히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적대감, 비난, 처벌, 거부, 무시, 복종 과잉기대, 실수의 불용납을 받고, 부모입장에 대한 이해 등을 지나치게 요구당하고 자람으로써 정상적이지 못한 정서적, 성격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 부모²⁹⁾는 사회의 기대와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투사되어 폭력이 쉽사리 촉발되고, 학대 혹은 방임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

28)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보고서, 30. http://fsvr.korea1391.org/data/2014_childabuse201.

29) 표갑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2000), 145-146.

라서, 부모의 성장배경에 대한 이해가 아동학대 상황에 개입할 때 필요하며, 자녀들도 부모의 입장과 형편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문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지 못하고, 도움을 구할 친구나 부모 혹은 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좌절하며 폭력이 행사되거나 무력감 속에 방치와 정서적 방임이 발생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자녀양육과 교육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은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 혹은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거나, 사회적인 개입을 간섭으로 생각하여 불편해하기도 한다. 일과 자녀양육의 과도한 압박에서 자원봉사자가 친구가 되거나 도우미로서 부모의 압박감도 해소해 주고 자녀 양육에 관한 조언과 도움도 줄 필요가 있다. 때로 양부모가 다 있어도 자녀양육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여자 혹은 어머니만의 몫으로 생각하여, 남편이나 시부모님들이 가사나 자녀양육을 돕지 않음에서 오는 어머니의 과도한 부담과 인간관계의 불만으로부터 학대가 일어나기도 한다. 특별히 “재학대 행위자의 주요 특성을 보면,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이 33.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20.2%, 부부 가족간 갈등이 9.3%, 성격기질이 17.5%를 차지했다.”³⁰⁾

한편, 최근의 여성고학력자들은 사회, 경제적 활동을 통한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결혼하고 출산한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지속하려는 욕구가 증가하여,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스러워하여 회피하면서 저출산 현상을 보이거나,³¹⁾ 자녀양육에 관한 책임을 사회교육기관에 전적으로 위임, 위탁 혹은 책임회피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아동학대나 신체 및 정서적 방임이 행해지기도 한다.

30) 「서울신문」, 2016.3.2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325009013>.

31) 남승연 · 최윤선 · 김미정, “경기도형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개발”, iv, 2015. 8. 31.

https://www.gfwri.kr/2013_homepage/data

3) 부모나 아동의 개인적 신체, 정신 건강상의 요인

아동학대 가해자는 개인적 신체, 정신 건강상의 질병이나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트라우마가 되는 상처의 영향을 받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이 양육된 방법 그대로 자녀를 양육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³²⁾하고, 정서적 불행감 및 불안정성이 높고, 알코올 남용이나 중독 가능성도 높다. 이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들은 또한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충동적이고 의존성이 높고 이기적 성격의 소유자이거나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거나 정체감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많다”.³³⁾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혹은 인간관계에서 입은 상처로 인하여 삶의 의미와 이유를 잃어버리고 무기력감, 무감각, 우울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아동을 돌볼 수 없어 방임하고 이것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 분노하고 학대하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은 발달 단계에 따라 특별한 영역이나 분야가 발달하기에, 그 시기에 특정한 성향이나 행동을 보임으로써 부모를 예민하고 힘들게 만든다.³⁴⁾ 학대의

32) 빛 독촉에 시달리며 도피 생활을 하던 경남 고성 의 박모씨(42, 여)는 주소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자신의 작은 딸 B양(7)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교육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큰 딸 A양(12)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 지인과 함께 A양을 암매장 살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신의 딸 2명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2016년 2월 13일 구속, 송치했다. 2016년 2월 13일, 경남 고성 딸 살해 암매장 사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3471577>

33) 고성혜,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동향”(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1), 17.

34)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에게 살인죄 적용...죽을줄 알고도 때려”, 「조선일보」, 2016. 1.23. “아들(7세)의 머리와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사망케한 최씨는 아들이 5살 때부터 폭력을 행사했다. 2012년 초등학교 입학후에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한 시간 정도계속 되었다. 입학한지 얼마 안되어 부산스런 돌출행동과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연필로 찌는 등으로 학교 폭력위원회에 회부되며, 자주 학교에 불려다니게 되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며, 아들의 돌출행동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담임교사의 항변에 홈스쿨링을 한다며 집

대상이 되어온 아동은 미성숙하거나 정신지체아동, 오랜기간 투병생활 하는 아동, 발달지체아, 기형아, 미혼모의 자녀, 입양아, 많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동, 원하지 않는 자녀, 가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 아들을 원했는데 딸로 태어난 아동은 부모의 애정과 정성이 있는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³⁵⁾ 이들은 미성숙이나 장애 때문에 혹은 환영받지 못함에서 오는 위축감으로 양육자와의 사이에서 불안해하거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동과 말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동학대로 연결되기 쉽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부모와 아동이 자신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대가 유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³⁶⁾ 즉, 부모는 자신의 생애주기와 가족의 삶의 주기에 맞는 발달과업을 잘 이루어야 하고, 자녀도 발달단계에 맞는 과업을 잘 이루어야 서로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부모에게 성인발달 단계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대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관계개선이나 상담을 통한 회복과 치료과정이 없이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처벌후 아동과 재결합시킨다면 아동학대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³⁷⁾ 최근 들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치료

에 방치해 두었고, 잘 씻지 않으려는 아들을 강제로 목욕탕에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폭행 속에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하고 몇 년간 냉동보관하였고, 일부 유기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42.html

35) 표갑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150.

36) 김태련 · 장휘숙,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5), 32-33.

37) 최근 아동학대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부모의 재학대로 인한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기 치료프로그램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0년 사이 경력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각자 1~5건의 아동학대 사망 사례를 경험하면서 재학대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상담원 원하는 건 예산, 인력과 ‘적극개입할 권리’” 탐사기획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6 회망, 『한겨레신문』, 2015. 5.11.

http://www.hani.co.kr/art/society_general/690591.html.

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4년 9월에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³⁸⁾ 이와 더불어 교육과 상담과 훈련의 기회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면 아동학대와 재학대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아동학대의 치유와 예방을 위한 아동에 대한 견해 정립

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함을 지닌 존재이다. 아동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언약의 후손이기에 어른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관계에 의존하는 관계적인 존재³⁹⁾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였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한 타락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며 오염시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독자적인 삶 살기를 좋아하며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⁴⁰⁾ 변질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로 인간은 완벽한 지

38) 그 외에도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현장출동 응급조치, 학대행위제지,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응급조치, 접근금지 등 사법 개입의 의무화, 친권제한, 정지, 상담보호 처분, 치료 상담, 수감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원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경복여성정책개발원(gbwoman), <http://blog.naver.com/gbwoman/220144783162> 2014.10.08.

39) Arthur Holms, *Christian Worldview*,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156-157.

40) W. T. Kirwan,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정동섭 역,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 현대 기독교 상담학: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을 위한 변증』 (서울: 예찬사, 2007), 104.

식을 잃었고, 정체성도 잃고 두려움에 쌓여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아담과 이브간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영원한 기业的 후사가 된 존재”로서 정체감을 회복하였다. 인간에 관한 모든 진실이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아동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어른 못지않은 죄인이지만 성령을 통해 죄사함 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인격적 존재, 언약의 후손이기에 어른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히 자녀로서의 아동은 부모의 의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부모에게 선물로 주어진 독립된 한 인격체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⁴¹⁾은 아동의 기본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아동은 18세이하의 사람으로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하에 4가지 기본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생존 권리(survival): 생명유지를 위한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 안락한 주거지, 적절한 생활수준에서 최상의 건강을 위해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2)보호받을 권리(protection):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발달권리(development): 신체, 정서, 도덕,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 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 (4)참여할 권리(participation):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문화행사,

41)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22.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200703_CRC01.pdf](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200703_CRC01.pdf)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아동의 의견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어른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2) 아동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축복(시편127:3)으로 부모의 모습을 닮았고, 가정을 통하여 양육이 맡겨진 존재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떠날 때까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을 진다. 자녀는 의존적인 존재로 부모가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돌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이고, 미성숙하여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과 성숙해 가기에 장기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즉, 아직은 미성숙하여 우선 수용하고, 오류와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고 인내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문제에 대한 관점을 가르쳐주어야 하는 존재이다. 부모는 아동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양육의 책임을 진 청지기이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때, 부모는 말로 훈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에 따른 책임을 알리고 아동의 의지를 꺾기 위해 체벌을 통해 행동을 고치려한다. 그러나 때로 부모의 삶의 스트레스가 체벌의 정도와 강도에 일관성 없게 더해지거나, 체벌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화되기 쉽다. 자녀는 체벌의 두려움으로 사람이나 권위에 맹목적 순종의 태도를 보여 행동을 멈출 수 있다. 그러나 마음엔 분노와 반감이 쌓여, 냉담하며 우울하며, 삶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갖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반항과 가출과 같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편집증상,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⁴²⁾ 우리나라에선 “빠대있는 가정”이란 말이 있는데, 훈육이 매섭고 엄격한 가정교육이 시행되는 가정으로

42) Melissa A. Miller, *Family Violence*, 채슬기 역, 『가정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하늘 사다리, 1997), 50-51.

여겨지면서, 자녀들에 대한 훈육은 혹독한 차원에 이르기도 하고, 부모에게 매맞는 것은 일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크리스천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믿음 좋고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 하는 마음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더 혹독한 훈육이 자행되기도 한다.⁴³⁾ 이로 인해서 인격과 영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는 청소년과 성인초기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 종종 만나곤 한다. 이들은 폭력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조울증, 피해망상, 공황장애 등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사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방황하기도 하며, 부모가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이단에 빠지거나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에베소서 6:4은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한다. 체벌과 학대가 혼돈되지 말아야 하고, 체벌은 훈육 중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⁴⁴⁾ 크리스천 부모들이 비폭력적인 훈육법을 찾고, 비폭력대화⁴⁵⁾를 훈련하며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일과 좋은 추억 만들기에 좀더 노력해야 한다.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체벌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주고, 생각을 말해보고 부모와 의견을 나누어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모범이 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부모는 성

43) 여중생 막내 딸이 가출을 자주하자 아버지이자 목사이며 교수인 C씨는 계모인 아내와 함께 딸을 빗자루와 빨래대로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하였다. 사망한지 보름 뒤에 경찰에 가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1개월 동안 옆방에 방치하여 미이라 상태가 되게 하였다. 『한겨레신문』, 2016.2.3. http://news.hani.co.kr/art/society_general/729149.html.

44) Charles M. Sells, *Family Ministry*, 정동섭 역,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422.

45) M. B. Rosenberg,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Life*, 캐서린 한 역, 『비폭력대화』 (서울: 한국NVC 센터, 2012).

숙한 그리스도인 청지기로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자녀들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가르치며 바르게 훈육할 책임이 있다.

6. 아동학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가족치료적 접근: 가족게임의 활용

학대는 보통 충동적인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하는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상태에서 나타난다면 방임은 주로 아동에 대한 무관심 또는 인식 결핍 등의 형태로 표현되면서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⁴⁶⁾ 따라서 적극적 학대행위에 대한 저지와 예방만이 아니라 신체 및 정서적 방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꾸어 부모와 자녀가 행복감을 느끼고, 가족의 대화를 통한 수용과 용납과 배려와 사랑의 베품과 같은 상호작용을 늘리기위해 행복했던 추억을 쌓아가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개입시에 가족게임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다. 부모도 피해자이다. 인간은 피해자이며, 또 한편, 가해자이다. 그러나 환경탓만 하는 동안 아동학대가 대물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상황에서 가해자 부모나 남편만 혼자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위축되고 경직된 표정으로 자기방어에 예민하여, 사건의 축소나 부인으로 일관하지 않고 악순환의 사이클을 적극적으로 끊도록 도와야한다. 가족폭력 행사자들의 집단상담에서 게임을 통해 분위기를 조금 바꾸면, 처음엔 감추고 부인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서로 지적도 해준다. 이어서 자신들만 변해서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서로 기여한 바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및 가족폭력 치유과정과 교육에 가

46) 박금윤,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논총」 제18권(1998): 175.

족원들,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야 온전한 의미의 치유가 일어나고 예방이 가능하다. 아동학대와 가족폭력의 피해자는 아동, 부모, 그리고 가족해체로 가기 쉽기에 가족 모두이기 때문이다.

가족치료적 접근법 중에서 가정유기체론적 이론은 1) 가족은 시공간을 넘어 연결된 하나의 총체로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지속적인 실체로 보고, 가족 한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가족해체적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태도에 대한 방어가 된다. 2) 또한, 문제징후를 가진 가족을 병리학적으로 보지 않고, 모두 정상이나, 현대의 빠르고 급한 삶 속에서 각자가 가진 스트레스에 대처할 줄 몰라서 문제가 가중되고 분노가 폭발된다고 여겨, 가족원 간에 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분화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은 (1) 자신을 남과 구별하고 (2) 자신의 느낌과정을 인지과정과 구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분화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계를 정하여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기에⁴⁷⁾ 자신과 자신의 가족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경계를 그을 수 있어 “융통성이 있고, 적응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⁴⁸⁾ 아동학대에 관련된 가족원들은 분화의 과정을 통해 자기정체감을 형성하여 학대의 대물림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원을 정죄하거나 병리적으로 보지 않으니, 온 가족이 자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문제를 볼 수 있다. 3) 더구나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한 생명체의 혈액순환과 같다고 보아, 가족의 대화와 상호작용의 부재는, 한 인간의 혈액순환계에 이상이 생긴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 가족의 일원인 각 지체의 욕구가 표현되고 충족됨으로써 다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원들이 ‘분화’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가족은 바쁜 속에서 교류없이 서로 걸돈다.

47) Yarhouse & Sells, 『기독교 가족치료』, 93.

48) D. S. Becvar & R. J. Becvar,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6th ed. (Boston: Allyn & Bacon, 2006), 147.

자신만 문제가 있고 다른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원 각자는 외로움, 두려움, 좌절, 수치심과 같은 감정들을 감추고 있고, 우울감과 열등감으로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위축되며, 상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각자 자신의 핸드폰과 컴퓨터와 인터넷에 빠져 누에고치처럼 상호작용없이 살면서 가족이라는 굴레와 책무가 힘겨워져서 가족해체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한국가족이 아동학대를 치료하고 예방하고 가족원 모두가 행복감을 누리려면, 가족게임을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가족 게임은 아동학대나 가족폭력으로 인한 경직된 분위기, 딱딱한 분위기를 깨기에 좋다. 스킨십과 움직이는 동작의 게임도 좋고, 그림을 그리는 가족협동화도 좋고, 더 나아가 “가족 드라마”도 좋다. 여기서 Lester가 소개한 대화가 있는 “Ungame”⁴⁹⁾을 소개한다.

Ungame은 판위에 놀이가 적힌 게임인데, 순서에 따라 주사위를 던져 숫자대로 칸을 옮기며 적힌대로 하는 게임이다. 말이 있기에 말이 먼저 끝까지 가서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다. 놀이판에는 행운과 불행이 교차되어 어느 번호에서는 고속도로로 직행으로 가기도 하고 어느 번호에서는 돌아가야 하기도 한다. 상품을 걸기도 하고,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 한 턱을 쓸수도 있어, 게임 후 가족 식사를 할 수 있는 정황도 만들 수 있다. 재미도 있고 경쟁심도 자극하지만 승부에 목숨걸 일은 없다. 주사위가 안착하는 번호마다 “나는 ~~때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때 옆에서 ~~해주면 좋겠다, 나는 ~~때 짜증이 난다, 이번 주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던져버리고, 외로운 적이 있었다면 이유 말하기, 내가 아이였을 때는 ~~,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나는 ~~때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다” 등의 질문과 서술에 대답해야 하기에 대화를 자극하는 게임이다. 시작은 있되 끝이 없는 게임이고, 하고나면 속이 시원하고 이해받고 사랑받은 느낌을

49) A. D. Lester, *Pastoral Care with Children in Crisis*, 신민규 역, 『어린이 위기상담과 보살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91-94.

유발한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침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다. 더구나 게임속 상황이라 현실의 걱정없이 자연스럽게 감정, 상황, 생각과 판단을 표현할 수 있다. 더구나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이 게임을 통해 자신의 life-story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아빠는 아이였을 때 어땠는지, 딸의 마음 속엔 어떤 섭섭함이나 아픔이 있는지, 아빠가 비록 표현은 못해도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질문에 따라 의견의 난사와 어디로 될지 모르는 중구난방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서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brain storming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터놓지 못하던 것까지 허심탄회하게 듣는 기회가 된다. 게임의 차례에 따라 말하기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독점하지 않고,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심각한 이야기라도 게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지만, 가족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히 한국이 산업화의 급하고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현재의 엄마와 아빠들은 원가정에서 배려나 돌봄이나 사랑을 채 받아볼 기회가 없었다. 죽도록 공부하고 일하기를 기대받고 강요받는 속에서 자라나 여유가 없다. 일단 목표가 생기면 무조건 가야만하는 강박적인 태도도 있다. 그런데, 가족 게임을 통해 부모의 life-story를 처음으로 들어보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들어보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심가질 수 있다. 전요섭은 중독자의 치유를 위해서 “자기인정과 자기노출과 회개와 용서, 친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⁵⁰⁾할 필요를 말한다. 학대와 분노폭발도 중독증상의 하나이다. 게임을 통한 Life-storytelling을 통해 하기 어려운 미안하다는 말도 나누면서 용서도 구하고, 친밀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이 모였을 때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처음 시작이 중요하고, 모이면 서로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50) 전요섭, “청소년의 포르노그래피 접촉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22권 1호(2014): 245-249.

문제와 입장을 말하는 “I-message” 방법과 “active-listening” 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말을 편견없이 진솔하게 듣는 경청의 방법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위기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안미숙은 “자서전 쓰기를 활용한 이야기 그룹의 경우,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였고, 그들의 삶의 이미지가 변하였다”⁵¹⁾고 말한다. 아동학대가 있는 가족원들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Hyde 는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만나면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고,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충돌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해지게 되면, 이기적으로 왜곡된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의 이야기 앞에서 왜곡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진다고 말한다.⁵²⁾ Life-storytelling을 통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자신을 드러내어 알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가족의 참의미를 깨닫게 된다.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표현되고 개발될수록 폭력이나 학대가 설자리가 없어지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나 갈등을 힘의 대결이나 대치적인 국면으로 보지 않는 모두가 승리하는 가족 친화적인 방법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 서로 저항과 반항 혹은 분노와 증오심과 같은 쓴 마음이 생기는 실패 혹은 패배의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다. 또한, 인격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공존의 방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며 더 나아가 서로를 긍휼히 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가정의 행복추구와 순기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김준수는 “연민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자기 내면 느낌의 원인이

51) 안미숙, “자서전 쓰기를 활용한 인간 삶의 형성 및 변형에 관한 연구”(Ph.D. diss.,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and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2004), 12-13.

52) J. A. Hyde, *Story Theology and Family Systems Theory: Contributions to Pastoral Counseling with Families* (Ph. 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8), 103.

되는 욕구를 인식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다”⁵³⁾라고 말한다. 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의 미래의 이야기가 없던” 상황에서 자신들이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이야기를 “기독교의 구원사역의 이야기 속에 자리 잡게”⁵⁴⁾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자신의 삶을 재창조”⁵⁵⁾하여, 아동학대나 가족폭력 상황을 해결할 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여 신앙의 성숙과 전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III. 닫는 글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아동학대는 주로 30-40대의 부모와 학령기 자녀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자녀들의 필요를 다 충족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죄책감과 수치심이 투사되며, 가족원들이 분화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위축된 상황에서 상호작용이나 대화가 단절되며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학대는 자녀들의 인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자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음도 살펴보았다. 텔레야 펠수 없는 관계인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아동학대는 가족이 모였을 때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원이 분화를 이루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족원을 새롭게 보고 공허히 여기며 도울 수 있다. 그 결과 과도한 삶의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는 한결 줄일 수 있다. 따라서

53) 김준수, “비폭력대화(NVC)의 분석과 기독교상담적 적용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3권 1호(2015): 157.

54) A. D. Lester,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5), 76.

55) Alice Morgan, *What is Narrative Therapy?* 고미영 역, 『이야기치료란 무엇인가?』 (서울: 청목, 2003), 4.

본 논문에서는 가족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 가족치료적 접근 속에 게임을 통한 이해의 분위기를 창출하는 해법의 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아동학대의 실상과 내용을 면밀히 알아보는 초기적인 논문이라, 지면상 가족치료적 접근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볼 수 없었던 것이 논문의 한계다. 후속 연구로는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 가족의 상호작용을 가족치료적 접근으로 분석해 보고 해법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연구가 있으면 아동학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치유법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성혜.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동향”. 소비자 아동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1.
- 경북여성정책개발원(gbwoman)<http://blog.naver.com/gbwoman/220144783162> 2014.10.8
- 김준수. “비폭력대화(NVC)의 분석과 기독교상담적 적용연구”.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3권 1호(2015): 137-163.
- 김태련 · 장휘숙.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5.
- 남승연 · 최윤선 · 김미정. “경기도형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개발”. iv, 2015. 8. 31. https://www.gfwri.kr/2013_homepage/data. 2016.2.16
- 박금윤.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논총』 제18권 (1998): 167-196.
- 안미숙. “자서전 쓰기를 활용한 인간 삶의 형성 및 변형에 관한 연구”. Ph.D. diss.,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and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2004.
- 오윤선. “PTSD 청소년의 기독교 집단교육상담 효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 1호(2014): 137-165.
-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22.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200703_CRC01.pdf](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200703_CRC01.pdf). 2016.2. 25.
- 전요섭. “청소년의 포르노그래피 접촉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22권 1호(2014): 221-255.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편.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 서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0.
- Gladding, Samuel T. *Family Therapy*. 김영희 외 공역, 『가족치료』. 서울: CLC, 2015.
- Holms, Arthur. *Christian Worldview*.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 Hyde, J. A. “Story Theology and Family Systems Theory: Contributions to Pastoral Counseling with Families.”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8.

Kirwan, W. T.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정동섭 역.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 현대기독교상담학: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을 위한 변증』. 예찬사, 2007.

Lester, A. D.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5.

Lester, A. D. *Pastoral Care with Children in Crisis*. 신민규 역. 『어린이 위기상담과 보살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Martin, Grant L.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김연 역. 『가정폭력과 학대』. 서울: 두란노, 1996.

Mash, E. J. & Wolfe, D. A. *Abnormal Child Psychology*. 조현춘 외 공역. 『아동이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Miller, Melissa. *Family Violence*. 채슬기역. 『가정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하늘사다리, 1997.

Morgan, Alice. *What is Narrative Therapy?* 고미영 역. 『이야기치료란 무엇인가?』. 서울: 청목, 2003.

Rosenberg, M. B.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Life*. 캐서린 한 역. 『비폭력대화』. 서울: 한국NVC 센터, 2012.

Sell, Charles. *Family Ministry*. 정동섭 역.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Stockholm Syndrome. https://en.wikipedia.org/wiki/stockholm_syndrome. 2016.2.27.

Yarhouse, M. A. & Sells, J. N. *Family Therap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전요섭 외 공역. 『기독교 가족치료』. 서울: CLC, 2010.

아동학대 바로알기. <http://www.childabuse.or.kr/main.htm>. 2016.3.11.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http://fsvr.korea1391.org/data/2014_childabuse201. 2016.1.30.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7011011>. 2016.3.27.

http://namu.wiki/w/구의동_고3_존속살인사건 2016.2.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42.html 2016.2.23.

http://news.hani.co.kr/art/society_general/729149.html. 2016.3.23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102374> 2016.3.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8922&ref=A>. 2016.3.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515332317code=940202. 2016.2.2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79756&plink=ORI&cooper=naver

<http://tvcast.naver.com/v/272555>. 2016.3.23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77034>. 2016.2.25

http://www.hani.co.kr/arti/society_general/722971.html 2016. 3.27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47137>. 2016.2.27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1&CCINO=2&pc/sNO=1>, 2016.2.27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3471577>. 2016.3.22.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92883>. 2016.3.27

https://ko.wikipedia.org/wiki/울산_울주군_여아_학대_사망사건. 2016.3.11

https://ko.wikipedia.org/wiki/김보은_김진관_사건. 2016.2.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8/0200000000AKR20160118096200004.HTML>. 2016.2.22.

【 Abstract 】

An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through Life-storytelling in Family Game

Young Hee Kim Shim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Child maltreatment in Korea is occurred and repeated by parent. In this study the phenomena of child maltreatment is studied on the cases reported through news. The reasons and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is examined and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t is searched. The circumstances of the violent family is characterized as highly stressful, lack of time and money for family wellbeing. Violent parents are raised under similar situations, as a result, they don't have proper role model of parent. They hardly managed to make living, make understanding for each other in the family because they have not enough chances of revealing their thinking and emotions. They easily burst into violent anger projecting their own frustrations, and maltreatments to their children in the name of disciplines. Child maltreatment negatively influence child in the process of personality formation, value system and human relationships. Here, the family systems therapy method that looks family not in pathological perspective, but focuses on enhancing their positive interactions to develop loving relationships, is introduced as a way to approach violent family. It cultivates mutual dedication and love and differentiation through enhancing efficient communication to understand each other by using family life-storytelling method through family game at the time of encounter with violent family.

Key words: child maltreatment, family therapy, differentiation, family game, life-storytelling.